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장흥 송호빈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준 화순 박순철

장흥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학대 예방교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보육교직원·아이돌보미 등 참석

장흥군은 23일 정남진시네마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어린의뢰인'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업무 담당공무원 등 120명이 참석했다.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은 계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진부의 방관으로 아동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계모가 숨진 아

이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분노, 탄식을 멈추지 못했다.

영화내용을 알고 있었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영화내용이 실화라는 것을 알기에 영화를 보기 위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영화에서 방관자였던 선생님, 이웃주민이 현실상 아니며 현실에 맞는 법 체계, 지속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은 오는 31일 일선에서 아동들을 자주 접하는 아이돌보미, 사회복지진담공무원도 영화를 관람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영화관람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피부에 와 닿는 학대예방교육이 되었다"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는 아이들이 행복한 장흥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흥=송호빈 기자

담양군, 식품가공기능사 양성과정 '성료'



담양군은 24일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식품가공기능사 양성과정을 모두 마치고 종강식을 진행했다.

40여 명의 농업인이 이번 과정을 함께했으며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 및 기계에 관한 이론교육

10회, 농·축·수산식품의 제조작업과 신선도 및 품질 검사능력에 관한 실무교육 12회를 함께했다.

참여한 농업인들은 일과가 끝난 오후 늦은 시간부터 밤까지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 지난달 38명이 필기시험에 응시, 33명이 합격하는 성

과를 이뤘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더불어농원 채경일 대표는 "다양한 특성과 입맛 영양을 추구하는 소비자와 사회적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혼자서는 도전 할 수 없는 과정을 개설해주신 농업기술센터에 감사드리며 바쁜 농사철이지만 여러 농업인들과 함께 좁은 공간이지만 서로 양보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조성을 앞두고 지역 농산물 가공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위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공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준비하는 동안 배우고 익히는 과정과 낮에는 일하고 밤에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여한 모든 농업인들에게 감동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영암군, 당정협의회 통해 현안사업 추진 '가속도'

영암군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0년 국비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조체계 구축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전동평 군수와 손점식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상석 국회의원, 조정기 군의회의장 및 도·군의원, 당직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청 남산실에서 진행했다.

군에서는 2020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해 14건, 3,923여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으며,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대불청년진화형산단 세부사업 특별지원(2,909여원) ▲대불 스마트에너지산단 조성(80여원) ▲대불주거단지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사업(160여원) ▲글로벌 음식문화거리 조성(30여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453여원) ▲공공위생형 귀농창업 시범농장 조성(130여원) ▲대불국가산단 환경개선사업(77여원) 등 국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또한, 지역 역점사업으로 ▲새대형발전 전락산업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간 연장에 따

른 대응계획 ▲한국트루트기오센터 건립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건립 ▲영암군 교통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전동평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영암은 많은 변화와 큰 성장을 거두었으며, 군재정은 6천억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며 "군민복지와 농업 문화관광, 신성장동력 산업 등 지역 현안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여수시, 섬 주민 통합의료서비스 '인기'



여수시가 섬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민관합동 통합의료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이동용 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관절·갑상선·복부 검진과 기초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보건소 방문보건팀, 치매관리팀, 구강보건실과 여수백병원, 이·미용협회, 일공공일안경원 서교점 등이 참여하고 있다.

3월에는 남면 안도리, 4월에는 화정면 개도리, 5월에는 삼산면 덕촌리를 방문했다.

지금까지 섬 주민 210명이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관절염 초음파 치료, 돌보미 지원, 이·미용 봉사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삼산면 덕촌리 한 주민은 "평소 무릎이 아파 외출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치료와 상담을 받아 너무 좋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섬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송기홍 기자

진도군, 미래세대 위한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

진도군이 최근 진도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과 결혼·출산 인식 개선을 위해 미래 주역인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과 공무원, 지역주민들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사)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의 인구교육 전문강사 강

지영 씨를 초청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가족의 힘'이라는 주제로 초저출산·인구절벽에 대한 이해와 극복 사례, 젊은 세대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강지영 강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도를 높였다.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단

당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결혼과 가족, 자녀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강진군,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 교육' 실시



강진군은 지난 24일 청소년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읍면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 조리종사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위생관리가 열악하고 식중독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

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종사자에 대하여 전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요즘 식중독 사고는 여름과 겨울이 따로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급식종사자로 애쓰시는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 그런 만큼 더더욱 음식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사로 참석한 전남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인 노희경 동신대 교수는 급식소 개인 위생관리

방법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로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또한 고강도의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된 조리 종사자들을 위해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 강의도 이루어졌다.

강진군은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해 비만 사회복지시설 급식종사자 식중독 예방교육에 추가로 6월 중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급식시설 38개소에 대해 위생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먹거리 제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홍보할 방침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친환경 천연 창성찬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찬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찬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찬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찬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찬디

장성찬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찬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찬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찬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찬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찬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찬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위 관리 병행